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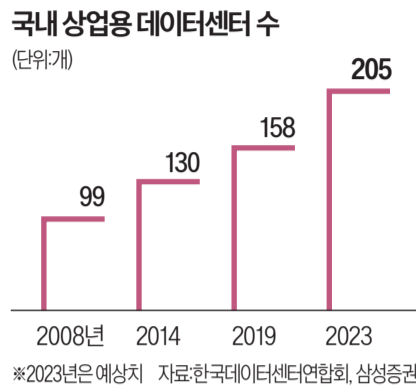
“새 성장동력” ... 데이터센터에 힘주는 건설사

▶ 산업리포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시장에 건설사들이 앞다퉀 달려들고 있다. 자율주행·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자 건설사들이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급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고 주요 먹거리인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나온 사업 다각화 차원의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시공 벗어나 지분투자·운영까지 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파빌리온자산운용과 함께 지분 투자를 통해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다. GS건설은 지난해 데이터센터 운영에 특화된 자회사 디씨브릿지를 설립했다.

SK에코플랜트는 데이터센터 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든 건설사 중 한 곳이다. 2020년 사업 확대를 위해 사내 스마트데이터센터그룹을 구성하고 초기 사



GS건설, 영국계 PEF와 손잡고 안양에 9층 데이터센터 조성 SK에코·DL건설도 사업 확대

주택시장 침체에 사업 다각화 단순 시공 벗어나 직접 운영도

업 개발부터 설계·조달·시공(EPC)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왔다.

올 들어선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플랫폼 업체 디지털엠티와 함께 사업비만 1조원에 달하는 상업용 데이터센터인 부평 데이터센터(조감도) 공동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2024년 가동에 나설 예정이다.

DL건설은 데이터센터 개발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아이월 데이터센터(지하 5층~지상 10층)를 착공했다. DL건설이 공사를 맡고 KT가 데이터센터 내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부터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 들어설 망중립 데이터센터인 ‘용인 죽전 퍼시픽씨너 데이터센터’를 시공하고 있다.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은 전남 해남의 복합개발지구 솔라시도에 초대

형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 해외에서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데이터센터 시장, 두 자릿수 성장 과거 데이터센터 개발은 이동통신사나 정보기술(IT) 업체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스마트 안전 기술 등에 관심을 갖고 IT 전문인력을 영입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또 데이터센터 개발에 난제로 꼽히는 부지 확보와 민원 해결, 전력 공급 방안 도출 등에서 노하우를 갖춘 사업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가파른 급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로 주택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필요성도 커졌다. 사업 초기 단순 시공에만 머물렀던 건설사들이 직접 데이터센터를 소유하거나 운영해 임대 수익 추구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 시장은 연평균 두 자릿수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 규모는 2020년 약 5조원에서 2025년 약 10조원으로 연평균 15.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은정 기자

삼바, 내일부터 4공장 부분가동 의약품 위탁생산 입지 강화한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이재용, 7년 만에 송도 방문

삼삼바이오로직스가 송도 4공장 부분 가동을 시작한다. 착공 2년여 만이다. 4공장 가동으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삼바이오로직스는 11일 송도 4공장 부분가동을 시작한다. 2020년 말 착공한 4공장에는 바이오의약품 25만6000L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들어선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6만 L 규모의 설비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삼삼바이오로직스의 부분 가동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여 앞당겨졌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수요가 많아져서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부터 선주문 계약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 4공장 완전 가동은 내년 2분기가 목표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1~4공장에 그치지 않고 ‘제2바이오 캠퍼스’ 건설을 위해 지난 7월 송도에 4260억원을 들여 35만7000㎡ 규모 부지를 추가 확보했다.

4공장 부분 가동에 맞춰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7년여 만에 송도 바이오 캠퍼스를 찾는다. 최근 이어가고 있는 계열사 현장경영의 연장선이다. 이 부회장은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설비가 들어선 4공장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삼삼바이오로직스를 찾은 건 2015년 12월 3공장 기공식 이후 7년여 만이다.

삼성은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낙점하고 육성 의지를 보여왔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북미 출장 때 미국 보스턴에 있는 모더나 본사를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메신저 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보스턴 지역 대형 바이오·헬스케어 벤처캐피털(VC)인 플래그십아이너너링을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때 논의는 지난 8월 삼삼라이프사이언스펀드가 미국 바이오벤처인 샌다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삼삼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삼물산과 삼삼바이오로직스가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다.

한재영 기자

日시장에 스퍼드는 현대차 ... 9월 판매량 첫 ‘세 자릿수’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일본 시장에서 150대 가까운 차량을 판매했다. 일본 시장 재진출 12년 만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 판매량이다. 절대 판매량 자체는 아직 적지만, 전기차 선호도가 낮은 일본 시장에서 서서히 판매가 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9일 일본수입차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달 판매량은 147대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일본 시장에 재진출한 현대차는 5월부터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수소전기차 넥쏘를 판매했고 있다. 판매량은 5월 7대에서 6월 37대, 7월 61대, 8월 76대로 계속 늘었다.

현대차는 지난 8일엔 후쿠오카에 도시형 전차실 ‘현대차 씨티스토어 후쿠오카’를 열었다. 100% 온라인 판매 중이며, 실물이 궁금한 고객을 위해 차량을 전시하고 시승, 구매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신차가 연 450만 대가량 팔리는 세계 3위 시장이다. 하지만 도요타



현대자동차는 지난 8일 일본 후쿠오카에 첫 번째 도시형 쇼룸 ‘현대차 씨티스토어’를 열었다. 현대차 제공

‘수입차 무덤’서 9월 147대 팔아 자국 브랜드 선호도 높은 日서 재진출 12년 만에 고무적 성과 후쿠오카에 도시형 쇼룸 오픈

닛산 등 자국 브랜드에 자부심이 높아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린다. 전체 수입 승용차의 월 판매량은 2만5000여 대에

불과하며, 수입차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가 월 5000여 대를 파는 수준이다.

일본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카 선호도가 높은 데다 경차 비중이 높다. 중형급 이상으로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도요타가 지난 6월 전 세계에 출시한 첫 전용 전기차 ‘bz4x’를 자국에선 ‘구독’ 서비스만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요타는 bz4x의 타이어가 풀리는

문제로 3개월간 리콜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다. 계약금을 기존의 절반인 38만5000엔(약 380만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도요타 등 일본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전환이 늦어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도 일본 전기차 시장에 속속 발을 들이고 있다. 중국 BYD는 중국 자동차업체 중 처음으로 지난 7월 일본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초 세 종류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일본 교토의 MK택시는 7월 아이오닉5를 50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이오닉5에 대한 현지 전문매체와 인플루언서의 호평도 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매체 모터팬은 “올 상반기 출시된 자동차 중 가장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기차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적고,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이 많은 점은 판매 걸림돌로 꼽힌다.

김형규 기자

‘이라크 부실 뇌관’ 정리한 한화

비스마야 12兆 신도시 사업 공사대금 지급 않자 계약해지

한화그룹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12조원 넘게 들어 이라크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다. 사업을 일찌감치 접어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지난 7월 ‘비스마야 신도시 및 사회기반 시설 공사’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에 공사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한화건설은 “NIC가 비스마야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31일 한화건설을 흡수할 예정이었다. ‘비스마야 리스크’가 그룹 지주사 격인 한화로 번져나갈

우려가 커진 만큼 일찌감치 사업을 접었다는 평가도 있다. 한화건설이 2012년부터 단독으로 추진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은 사업비만 12조9964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7년 말까지 비스마야 지역에 10만 가구 주택과 학교, 병원 등 19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NIC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실 위험이 불거졌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한화건설의 미수금·미청구공사금은 6월 말 8280억원(상차처리대금 제외)으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처음에는 매출채권으로 잡히지만 회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외손실’ 형태로 반영된다.

한화건설은 NIC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부채 항목)으로 미수금·미청구공사금(자산 항목)을 상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말 한화건설의 해외공사 선수금은 8078억원이다.

김익환 기자

몸값 4조 메디트 인수전에 ‘전쟁 변수’

美,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 제재 강화 메디트, 러 수출비중 10% 넘어 미국계 PEF, 입찰 포기 가능성

몸값 4조원에 이르는 국내 구강스캐너 업체 메디트 인수전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국 대러시아 제재다. 메디트의 러시아 사업 비중이 10% 넘는 상황이라 주요 인수 후보군에 포함된 미국 사모펀드(PEF)들이 최종 입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메디트의 최대주주 유니스캐피탈은 이달 중후순 본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일 후보는 SK텔레콤, 한국의 GS그룹과 미국계 사모펀드(PEF) 칼라일로 구성된 GS칼라일 컨소시엄, 미국계 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유럽계 PEF CVC캐피탈 등이다.

메디트 매출은 해외 비중이 40% 이상이다. 유니스캐피탈이 2019년 회사를 인수한 뒤 해외 사업을 적극 확장한 결과다. 문제는 수출국 중에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국이 일부 포함될 것이다.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이다. 러시아 수출 비중은 1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통해 자국 기업이 이들 국가 및 국가 소속 개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KKR과 칼라일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메디트를 인수하면 메디트가 영위하는 러시아 사업장에 미국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다.

미국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재명 기자

日 대형 쇼핑몰에 취업한 ‘LG 클로이’



LG전자는 9월 ‘일본 기후현 도키시에 있는 이온몰 도키점에 자율주행형 서비스 로봇인 ‘LG 클로이 가이드봇’ 두 대를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한 일본 고객이 이온몰 매장에 배치된 클로이 가이드봇을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제공

“기능성 신발 깔창으로 자세 교정”

▶ 으뜸종기

오뚜랩 ‘할룩스 매직 인솔’

“부드러운 깔창의 감촉을 발바닥으로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바르게 걷도록 유도하는 발 아치 쪽으로 공기를 이동시켜 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평발이나 족저근막 등 발의 병증이 있는 사람과 자

세 교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교정한다. 이 대표는 올바른 걸음걸이로 어깨나 목, 허리, 다리근육 등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신발과학연구소와 함께 할룩스 매직 인솔을 제작하는 오뚜랩의 이수경 대표(사진)는 지난 7월 제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는 동의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다. 양양원에서 10년간 재직하며 임상 경험 관련 특허를 38건이나 등록했다. 이 대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물리치료

학 석박사 과정 제자들과 함께 할룩스 매직 인솔을 개발했다.

라틴어 ‘할룩스(hallux)’는 엄지발가락을 뜻한다. 할룩스 매직 인솔은 엄지발가락 아래 공기주머니에 체중이 실리면 발 아치 쪽으로 공기를 이동시켜 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평발이나 족저근막 등 발의 병증이 있는 사람과 자세 교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교정한다.

이 대표는 올바른 걸음걸이로 어깨나 목, 허리, 다리근육 등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신발과학연구소와 함께 할룩스 매직 인솔을 제작하는 오뚜랩의 이수경 대표(사진)는 지난 7월 제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는 동의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다. 양양원에서 10년간 재직하며 임상 경험 관련 특허를 38건이나 등록했다. 이 대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물리치료

김진원 기자